

'공동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자'

신기남 위원장 "공공도서관, 2023년까지 420여곳 더 확충"

공공도서관이 1042개관 (2017년)에서 1468개관 (2023년)으로 420여개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보좌위원회 신기남(67) 위원장은 23일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2022년까지 공공도서관을 총 1500개관 만드는 것이 국정과제였다. 위원회는 여건 등을 고려해 숫자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올해 54개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80개관 이상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신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보급하고, 도서관과 지자체 간 공동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도서관의 지역(공공도서관)·교육(학교도서관)·지식(대학도서관) 공동체 속에서의 교류 협력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작은 도서관은 2017년 6058개관에서 2023년 6820개관으로 늘린다. 국민 1인 장서수 역시 2017년 2.03권에서 2023년 2.5권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노후 공공도서관의 새단장(리모델링)도 지원한다"면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 자유롭게 학습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오픈액세스'를 확대하는 등 정보 자원의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도서관 접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스마트 도서관 시범사업,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 강화, 도서관 인공지능(L-AI) 서비스 개발, 사물인터넷 기반 도서관 환경 구축 등 미래지향형 도서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이끄는 제6기 도서관정책보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했다.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의 수립

과 심의·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한 신 위원장은 "제2차 계획이 서비스 질의 향상에 목표를 뒀다면, 3차는 가치에 중점을 뒀다. 개인의 삶, 공동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람과 삶이 있는 도서관, 우리 삶에 더욱 밀착돼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사립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4대 전략방향을 설정했다.

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과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간간의 제약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자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예컨대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도서관은 기후·의료·공공정보 등 생활 밀착형 전문 정

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구실과 기능 강화, 국회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의회·법률정보 서비스 강화, 법원도서관은 국가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도서관의 공간적 측면도 돌아봤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카페 등 포용적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지진, 한파 등 각종 재난 시 도서관이 안전한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력 충원과 사서 재교육, 법무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 국제교류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의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따뜻한 포용 국가의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 진행

문화재청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가 23일부터 2월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이어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규

명하는 문화재청의 학술발굴조사 사업이다.

2019년도 공모는 주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보존 조치가 필요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에게는 발굴조사 비용을 최대 1억 7000만원 지원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안내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정상회담 관련 오류	태권도 표기 오류	동해 표기 오류
<p>판문점 로마자 표기 오류</p> <p><input type="checkbox"/> Panmunjeom <input checked="" type="checkbox"/> Panmunjom</p>	<p>'태권도'를 '태권도', '태권도 선수'를 '태권도카'로 표기</p> <p><input type="checkbox"/> Taekwondo <input checked="" type="checkbox"/> Taekandow Korean Karate</p> <p><input type="checkbox"/> Taekwondo play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TaekwondoKa</p>	<p>로마자 표기 오류, 일본해 단독 표기</p> <p><input type="checkbox"/> East Sea (Sea of Jap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Tong hae Sea of Japan (단독 표기)</p>
<p>* 많은 언론에서 Panmunjom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옛 로마자 표기이다. 현행 국립국어법에 표기법에 따르면 Panmunjeom이 올바른 표기이다.</p> <p>* 한국 외교부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p>		

"대한민국 정보 바로잡아주세요"

해문홍, 국제기구에 한국 관련 정보 200여 건 수정 요청

"유럽이나 아랍어권 국가 등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공용어에 영어·중국어·일본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남북한의 경계가 '38선'이라거나, 통화 단위가 '환', '전'이라고 표시된 사례들도 있었다. 한국 관련 지도에서 동해나 독도 명칭 오류 등 명백히 잘못된 정보도 발견되어 발견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105개에 대해 실시해 온 '국가 기본정보 해외 오류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한국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래된 정보 총 222건을 바로잡아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문홍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이트(www.factsaboutkorea.go.kr)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매체 등에 잘못 게재된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바로잡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18개월간 주요 국제기구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G)20, 유네스코(UNESCO) 등과 주요 국가 외무부·상무부·교육부 및 주한 대사관 등 75개 기관 105개 누리집(각 영어, 다국어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수정이 필요한 누리집의 관리 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을 완료했다.

해당 누리집에 직접 게재되었거나 자료집 형태로 등재된 내용 중 한국의 국가 정보(수도, 행정구역, 언어, 인구

등), 경제지표, 정부 정보(대통령, 국회, 정부조직 등), 국경일, 국가상징(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가장 신고가 많았던 오류는 정상회담과 태권도, 동해표기 오류였다. 태권도를 태권도, 태권도 선수를 '태권도카'로 했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견된 오류 중 상당수는 한국에 대해 뒤떨어진 통계나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총 95건)이었다.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3년 내의 이전의 정보를 사용해 비교적 양호했으나 외국의 외교부 및 주한 대사관의 한국 국가정보는 5~10년 전의 오래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제공하며 정정을 요청했다.

해문홍은 "이번에 발견된 해외 오류 중 수정을 완료하였거나 수정을 약속한 사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34건이 시정됐다"며 "나머지 오류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시정 여부를 확인해 수정을 반복하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외 오류 사례를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해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유사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통계자료 등 주제별로 '시정 근거 자료'의 온라인 연결(링크)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